



신년사

2007. 1. 1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김봉균 회장

대망의 2007년 정해년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개방화와 민주화의 불길이 열화와 같이 퍼지면서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생산성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인상과 턱없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인하여 종전에 중저가제품 위주의 생산체제하에서 겨우 지탱해 왔던 가격경쟁력은 현격히 약화되어 이미 사라진지 오래된 것이 현실입니다.

전기·전자제품업계도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종전의 생산현장위주의 품질관리(QC) 체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사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고객지향적인 총체적 품질경영(TQM)으로 진전하여 고객위주의 친환경적인 체제로 발전하여 정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에너지효율관리에 힘써 고객요구를 적극 수용함은 물론 중국적으로는 적극적인 세계시장으로의 진입 등 날로 변화무쌍한 국내외 여건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희망찬 정해년 벽두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용품업계를 인도하는 충실한 향도로서 전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우리 전기·전자용품업계를 격려하고, 업계의 고충과 애환을 같이 하며 고충을 같이 해결하는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업계를 위한 제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당면과제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응능력을 최대화하고 효율 또한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를 신년도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회의 기능을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다기능적 조직으로 체제를 새롭게 편성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법정 전문기관으로 재정립도약하는 것입니다.

안전인증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전기·전자용품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한 관련 교육을 현장감 있게 체계화하여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적기의 발간 및 보급을 확대하고 불법전기용품의 조사업무를 체계화하여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인 불법·불량 전기제품의 단속을 강화하여 이 땅에서 이러한 불법·불량제품을 박멸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2006국제우수전기제품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전기제품과 외국제품을 한곳에 경쟁력 있게 진열하여 마음껏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명기기·비데, 게임기, 자판기, 음향기기, 가요반주기, 전동공구 등 전 전기용품이 출품되는 총체적인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국내제품과 외국제품이 동시에 한 자리에 전시되어 함께 비교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변별력을 제고함을 물론이려니와 우리의 제품이 국제시장으로 대거 진출할 수 있는 수출의 교두보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을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물론 일반소비자에게 계속 해서 널리 홍보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연관된 PL교육의 확대, 산업자원부와 연계된 전기제품 PL상담센터의 활성화, 현대해상과 연계해서 6년째 시행하는 PL보험의 확대, 그리고 PL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PL확산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과거 피와 땀으로 경이적인 경제개발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협회를 오늘의 역경을 전진과 변영으로 이끄는 데 중추적 발산지로 만들겠습니다. 전기용품제조업체의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켜 전기용품 수출의 큰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무역질서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고, 세계 산업 7강 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의 확충,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 에너지안보강화 등을 위해 기업활력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우리 전기업체는 부단히 노력해야하고 협회는 앞장서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알찬 한해가 되도록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분발과 각오를 다짐하면서,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